

박인비·유소연, 스크린 골프 실력이 궁금해~



박인비

골프존 매치플레이 챌린지 출전
25일 한국·미국서 동시에 개최
리디아 고·린드베리도 참가
실시간 화상 연결 진행·중계

박인비(32)와 유소연(30)이 골프존 미국여자 프로골프(LPGA) 매치플레이 챌린지에 출전한 다. 스크린골프 전문 기업 골프존은 20일 '박인비와 유소연, 리디아 고(뉴질랜드), 페르날라 린드베리(스웨덴)가 출전하는 골프존 LPGA 매치플레이 챌린지를 25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회는 한국 시간으로 25일 밤 8시, 대전 유성구 소재 골프존 조이마루와 미국 플로리다주의 월드골프 빌리지 안에 위치한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서 동시에 열린다. 미국 시간으로는 25일 오전 7시다.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력을 활용해 한국과 미국의 스크린골프 대회를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해 진행한다.

이 행사는 1라운드 18홀 포섬 매치, 2라운드 18홀 포볼매치 등 총 36홀 매치플레이로 우승자를 가린다. 코스 세팅은 베스페이지 블랙 코스로 설정한다.

우승 상금은 1만달러(약 1200만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선기금으로 기부한다.

골프존 박강수 대표이사는 "전 세계 골프 투어가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LPGA 투어 메이저 우승자들이 13시간 이상 시차가 나는 공간에서 동시에 참여하는 스크린골프 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비접촉 골프 경기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인비는 "코로나19 때문에 LPGA 투어가 중단돼 대회가 그리웠다"며 "먼 나라에 있는 LPGA 투어 동료 선수들과 실시간 매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장에는 선수와 관계자 외 출입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골프존 공식 유튜브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TV 채널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유소연

미켈슨 "우즈의 홈 코트서 우즈 잡는다"

25일 맞대결 이벤트 앞두고 승리 장담

필 미켈슨(50)이 '영원한 라이벌' 타이거 우즈(45·이상 미국)와 맞대결을 앞두고 승리를 장담했다.

미켈슨은 20일(한국시간)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와 인터뷰에서 "우즈의 홈 코스에서 그를 꺾겠다"며 "우즈는 자신의 홈 코스에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는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켈슨과 우즈의 맞대결 이벤트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메달리스트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2018년 11월 첫 맞대결 당시 '일대일 매치'로 진행된 우즈와 미켈슨의 경기는 이번에는 미국프로 풋볼(NFL)의 '전설'인 페이턴 매닝과 톰 브래디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우즈가 매닝과 한 편을 이뤘고 미켈슨은 브래디와 팀을 구성했다.

이번 경기는 1000만달러(약 122억6000만원)의 자선기금을 마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돕기 기금으로 쓸 예정이다.

2018년 11월에 열린 우즈와 첫 맞대결에서 이겨 당시 상금 900만달러를 독식했던 미켈슨은 "우즈의 홈 코스에서 열리는 대회지만 변경거리가 될 수는 없다"며 "우즈가 자신의 홈 코스에서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동반자인 매닝과 브래디의 골프 실력을 보면 매닝이 다소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즈의 팀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많다.

외국 배팅업체인 윌리엄 힐의 승리 전망에서도

우즈-매닝 조의 승리 배당률이 4/9로 미켈슨-브래디 조의 승리 배당률 7/4에 비해 낮다.

같은 1달러를 걸었을 때 우즈-매닝 조가 이기면 1.44달러를 받고, 미켈슨-브래디 조가 승리하면 2.75달러를 따낸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켈슨은 "브래디와 몇 번 골프를 쳐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샷이 몇 차례 나왔다"며 "퍼트나 장타, 짧은 아이언 샷 등 전체적인 실력이 좋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공식 대회에 출전할 기회는 없었지만 2주간 연습을 많이 했다"며 "최근 사흘간 36홀씩 돌았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연합뉴스

테니스 세계랭킹 24위까지 올랐던 한국계 선수 햄프턴 은퇴 선언

2013년 여자프로 테니스(WTA) 단식 세계 랭킹 24위까지 올랐던 한국계 선수 제이미 햄프턴(30·미국·사진)이 은퇴를 선언했다. 햄프턴은 2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테니스는 나의 첫사랑이었다"며 "경기에 나서지 못하니 몇 년이 지났지만 공식적으로 이별하러니 마음이 아프다"는 글을 올렸다.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 햄프턴은 "저의 소식을 아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수술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실 것"이라며 "하지만 테니스 코트에 복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거처를 옮긴 햄프턴은 2012년 9월 서울에서 열린 WTA 투어 코리아오픈에 출전해 "세 살 때 엄마랑 같이 한국에 한 번 와보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간단한 인사말은 한국어로 할 수 있다"며 "엄마가 평소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시는데 나에게 딱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3년 프랑스오픈 단식 16강까지 올랐던 햄프턴은 그해 1월 호주오픈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빅토리아 아자라카(벨라루스)를 32강에서 만나 1-2(4-6-4-2-6)로 분패했다.

전성기를 보낸 2013년에 햄프턴은 가르비네 무구루사(스페인), 페트라 코비토바(체코), 아그니 에슈카라드반스카(폴란드), 케릴라인 보즈니아키(덴마크) 등 톱 랭커들을 꺾었고, WTA 투어 대회에서 한 차례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4년 1월 첫 대회로 뉴질랜드에서 열린 ASB 클래식 4강에서 비너스 윌리엄스(미국)와 맞대결을 앞두고 허리를 다쳐 기권했고, 이후로는 코트에 돌아오지 못했다. /연합뉴스

프로당구 PBA 새 시즌 선발전 계획 확정

28일부터 트라이아웃 실시

7월 6일 투어 개막전 열려

프로당구협회(PBA)가 새 시즌을 앞두고 프로 선발전 계획을 확정했다.

PBA는 선발전과 등록 절차를 6월 중 마무리하고 7월 6일부터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PBA-LPBA 투어 개막전 SK렌터카 챔피언십'으로 새 시즌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프로 선발전은 남자의 경우 '빌리보드 PBA 트라이아웃 2020'과 'SK렌터카 PBA Q-School 2020' 2단계로 운영된다. 단계별로 참가 자격이 다르다.

1단계인 '빌리보드 PBA 트라이아웃 2020'은 두 그룹으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28~29일 이틀간 열리는 'PBA 트라이아웃 1'은 신규 지원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의 아마추어 등록 선수, 동호인 등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원자의 경우 심사로 출전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를 통과한 150여명이 PBA 드림 투어 129위 이하 선수와 함께 경쟁하는 'PBA 트라이아웃 2'에 출전한다.

'트라이아웃 2'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

며, 상위 50명이 'PBA Q-school'에 진출한다.

2단계이자 PBA 1부 투어 진출을 위한 최종 시드권 격인 'SK렌터카 PBA Q-school 2020'은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1단계를 통과한 50명과 PBA 드림 투어 128위 이내의 선수, 그리고 1부 투어에서 강등된 선수가 겨룬다. 해외 선수는 PBA 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선수 등이 참가할 수 있다.

'PBA Q-school' 상위권 선수들은 2020-2021 시즌 PBA 1부 투어 등록 선수 자격을 얻는다.

기존 선수의 등록 현황에 따라 차순위 선수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새 시즌 PBA 1부 투어에 직행할 수 있는 국내 선수는 대한당구연맹(KBF) 랭킹 10위까지가 대상이다. 11월부터 30일까지 선수는 프로 선발전 참가 지원 시 'Q-School' 단계에 바로 참가할 수 있다.

해외 선수는 전 시즌과 동일하게 우수 선수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PBA 경기위원회를 통해서 자격 심사 후 등록 자격이 부여된다.

여자프로(LPBA) 우선 등록은 해외 선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LPBA는 이번 시즌은 승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시즌부터는 여자부 운영을 PQ 라운드 방식을 채택해 본선 진출자를 한정한다. 하반기 신규 선수 선발전이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해변의 롤러블레이더

미국 플로리다 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로 재개장한 할리우드 비치에서 19일(현지시간) 한 주민이 산책로를 따라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 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로 재개장한 할리우드 비치에서 19일(현지시간) 한 주민이 산책로를 따라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루키스, 나의 청춘은 너의 것
3관	카메 벨레포크, 라스트 폴 메저, 마이 스파이
4관	더 플랫톱
5관	오퍼나자: 비밀의계단, 비커밍 제인
9관	프린스 이스케이프
7관 씨네커를	레이니 데이 인 뉴욕, 남씨의 아이 나는보리, 호텔 레이크
8관 씨네커를	위대한 쇼맨, 하이큐!! 또 다른 도전 킬러의 보디가드 무삭제 특별판 나의 청춘은 너의 것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2020. 5.27.(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